

행동 활성화 체계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이원 열정과 향유의 다중매개효과[†]

이 대 인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 및 임상심리학과
석사졸업생

황 성 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의 민감성은 양극성 장애의 신경생물학적 취약성으로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는 BAS가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체로서 이원 열정과 향유의 작용을 알아보려 했다. BAS는 보상 경험을 추구하므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열정은 자기 체계와의 통합성에 따라 적응적 결과가 달라지는데, BAS에 따른 열정적 추구가 강박적이면 취약성이 되므로 향유될 수 없고 따라서 양극성 장애 증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열정이 자기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 향유를 통해 자원화되므로 양극성 장애 증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이버대생 450명에게 행동 활성화 체계 척도(BAS), 열정 척도(PS), 향유 신념 척도(SBI), 현재의 양극성 증상을 측정하는 내적 상태 척도(ISS), 과거의 조증 병력을 평가하는 양극성 스펙트럼 진단 척도(BSDS)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 80번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가설은 지지되었다.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는 감소하고, 그 결과 양극성 장애 증상의 증가에 이르는 간접효과(즉, 악화 경로)가 성립하였다. 반면에 BAS가 삶의 다른 측면과 균형을 이루는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를 경유하여 양극성 장애 증상의 감소에 이르는 간접효과(즉, 완화 경로)가 유의하였다. 양극성 장애의 새로운 중간 기체로서 열정과 향유가 갖는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행동 활성화 체계, 양극성 장애 증상, 강박열정, 조화열정, 향유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2022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E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황성훈,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el: 02-2290-0362, E-mail: thinkgrey@hanmail.net

 Copyright ©2025,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양극성 장애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알코올 등의 물질 남용, 대인관계 및 직업 기능 곤란, 자살과도 관련된 심각한 정신 장애이다(Miklowitz & Johnson, 2006; Woods, 2000). 그러나 양극성 장애는 열정적으로 높은 창의성 및 병전 성취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 정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양면적 특성을 갖는다(Johnson, Murray, et al., 2012; Miklowitz & Johnson, 2006; Murray & Johnson, 2010).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변인이 바로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이다. BAS는 보상을 주는 활동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동기 부여를 증진한다.

BAS가 정서를 변화시키고 목표 추구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적응적 결과는 BAS의 활성화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 BAS의 과잉 민감성은 목표 및 보상 추구 행동의 부적응적 고양을 유발하므로 양극성 장애의 발병 및 경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다(Alloy et al., 2008; Meyer et al., 2001; Salavert et al., 2007). 민감한 BAS에 따른 왕성한 동기부여는 한편으로는 창의성과 생산성이라는 적응적 결과를, 다른 한편으로는 동기와 정서의 조절이 불안정한 양극성 장애라는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BAS에서 동기화되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갖는 양면적 결과를 열정과 향유라는 두 가지 새로운 중간 기제를 통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목표 및 보상에 대한 추구는 그 자체로는 적응적이다.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가 열정인데(Vallerand, 2015), 이는 자기 체계와의 통합 수준에 따라 그 적응적 결과

가 달라진다. BAS에 따른 보상 추구가 자기 체계와 적절히 통합된 열정으로 이어지면, 이는 자원 요인으로서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Schellenberg & Gaudreau, 2020; Schellenberg et al., 2022). 이 경우 BAS의 민감성이 높더라도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BAS에 따른 열정적 추구가 자기 삶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향유되지 못하고(Schellenberg & Gaudreau, 2020; Schellenberg et al., 2022), 양극성 장애 증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으로서 BAS의 민감성과 조절 곤란

BAS는 인간의 정서 및 행동에 기초하는 기본적 동기 체계 중 하나로서, 목표와 보상 관련 자극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거나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신경 행동적 동기 체계를 의미한다(Gray, 1990). BAS 모형은 동기 체계의 개인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기이론의 하나이며, (경)조증에서 기분 변화보다 '동기적 활성화'가 더 핵심적이라고 본다(Fowles, 1988). Johnson, Edge 등(2012) 역시 조증이 쾌락적이라기보다 동기적 현상으로 보았다. 양극성 장애는 보상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을 획득한 이후에도 접근 동기가 정상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BAS 민감성은 양극성 장애의 발병 및 경과의 예측 요인이며(Alloy et al., 2008; Meyer et al., 2001; Salavert et al., 2007), BAS 민감성은 양극성 장애의 위험군 및 임상군에서, 심지어 관해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Meyer et al., 2001).

Alloy 등(2006)은 양극성 장애에서 BAS 과민반응 취약성 가설(BAS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 BAS 민감도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BAS 민감성을 지닌 개인은 중등도 BAS 민감성을 지닌 개인보다 평생 양극성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약 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극성 우울장애의 발생 가능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BAS의 과잉 민감성에 대해서 활성화와 비활성화 사이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다(Depue & Iacono, 1989; Urošević et al., 2008). BAS의 불안정성과 조절의 어려움은 기분 기복을 설명하며, BAS 조절 곤란 수준이 높을수록 양극성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Dempsey et al., 2017; Dodd et al., 2013). BAS의 과활성화와 비활성화 사이를 오가는 극단적인 상태 변화는 양극성 장애의 기분 사이클을 설명한다(Depue & Iacono, 1989). 양극성 장애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목표와 보상이 발견될 때 이를 쫓아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경향도 문제이지만, 어떤 때는 적극적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시들해지는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목표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동반되는 긍정 정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소극적으로 돌아섰을 때 동반되는 부정 정서가 찾아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서 기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동기 체계의 변동성이 곧 기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민감한 BAS의 변동성에 따른 조절 곤란이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이 될 수 있다.

BAS와 양극성 장애의 중간 기제로서 열정

높은 BAS 민감성은 목표 지향적 행동 경향성을 강화하고, 보상 관련 단서에 노출될 때 긍정 정서를 증폭시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BAS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은 도파민 및 전두엽 활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coni et al., 2017; Davidson, 2000; Wheeler et al., 1993). BAS는 매력적 목표와 같은 외적 단서나 목표 달성을 기대와 같은 내적 단서에 의해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BAS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적 활동(예: 계획하기, 효능감 가지기, 희망하기 등)과 목표 달성을 향한 행동을 촉진한다(Johnson, Edge, et al., 2012). BAS는 유기체가 바라는 어떤 것을 향해 다가가게 하는 심리적 가속 체계로서 원하는 대상의 단서를 민감하게 포착해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므로,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열정적 추구는 자기 체계와의 통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그 적응적 결과는 열정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열정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기울이는 활동에 대한 강한 이끌림(Vallerand, 2015)’으로 정의할 수 있다. Vallerand 등(2003)은 열정을 개인의 내면화된 정체성에 따라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과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으로 구분하는 이원 모형(Dualistic Model of Passion [DMP])을 제시하였다. 활동이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에 자율적으로 흡수되는 자율적 내면화 과정은 해당 활동이 자기 체계와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열정을 형성한다. 반면, 활동이 외부 압력이나 내적 강박에 의해 수용되는 통제적 내면화

는 활동을 자기 체계 속에 불안정하게 결합시켜 강박열정으로 이어진다.

조화열정은 안정된 자존감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활동에 임하며 마음챙김적 방식으로 수행한다(St-Louis et al., 2018). 또한, 위협이 거의 경험되지 않으며(St-Louis et al., 2021) 개방적 활동 참여로 긍정 정서, 활력, 웰빙 등 다양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Vallerand, 2015). 반면, 강박열정은 자신의 가치가 특정한 성취나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부 자존감에 기반하고(Mageau et al., 2011), 열정 활동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다른 자기 요소 및 삶의 영역과 갈등을 일으키며(St-Louis et al., 2021), 일시적으로 긍정 정서나 단기적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주로 부정 정서, 관계 갈등, 일빙(ill-being)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Vallerand, 2015).

열정은 보상 단서에 반응하여 활성화되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는 BAS(Gray, 1990; Harmon-Jones & Allen, 1997)와 연관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열정의 이원 모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 요인인 BAS가 통합적 자기 체계의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적응적이나, 대조적으로 불안정한 자기 체계의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또 다른 취약성 요인이 겹쳐지는 것이므로 양극성장애 증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BAS에 따른 보상 및 목표에 대한 열정적 추구의 양상은 현상적으로 강박열정과 유사하다. 강박열정은 특정 활동을 좋아하나 그것에 압도되며(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열정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할 때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

(Carpentier et al., 2012; Vallerand et al., 2003), 이러한 현상은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안정하게 몰두하는 BAS의 과잉 활성화 양상과 서로 통한다. 실제로, 열정적이되 조절이 어려워 다른 삶의 영역과의 조화를 해치는 경우인 강박열정이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유해 양극성 장애 증상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대인, 황성훈, 2025).

BAS와 양극성 장애의 중간 기제로서 열정의 향유 가능성

향유는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음미함으로써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능력이다(Bryant & Veroff, 1984). 감각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의 균형을 이루는 향유는 긍정 정서를 유지 및 조절하는 수단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인의 목표와 상황의 제약에 따라 긍정 정서를 유연하게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적응적 조절 전략이다(Bryant, 2003). Bryant와 Veroff(2007)는 어떤 경험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기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자신의 삶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긍정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향유는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향유는 인간의 창조성을 확장시키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으로서(Guilford, 1950), 향유 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적을 찾고 성취를 이루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낼 가능성을 증대시켜 준다(King et al., 2006). 그 결과, 향유는 건강과 행복을 강화하고 삶의 목록을 확장시켜 주며 개인이 지닌 자

원을 축적하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향유는 긍정 정서 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후속 긍정 정서를 항상시키는 긍정 정서의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Colombo et al., 2021). 따라서 향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이끌림이라는 긍정 정서, 즉 열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향유는 긍정 정서를 유지·연장 또는 상향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Bryant & Veroff, 2007), 조화열정이 향유에 가장 도움이 된다(Schellenberg & Gaudreau, 2020). 이와 일치하게 향유는 조화열정과는 정적 상관을, 강박열정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Schellenberg & Gaudreau, 2020). 즉, 조화열정은 향유의 가능성을 높여서 삶을 풍부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을 확충하지만, 강박열정은 향유의 이러한 자원 증진 작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Schellenberg 등 (2022)은 이원 열정이 운동선수의 향유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화열정 수준이 높은 선수는 일상적 긍정 경험을 더 잘 향유하여 소진의 위험이 낮은 반면, 강박열정 수준이 높은 선수는 일상적 향유 경향이 낮아 소진 위험이 높았다. 즉, 조화열정은 향유라는 자원 증진적 정서 조절을 촉진하는 반면, 강박열정은 향유를 차단하여 상반되는 적응적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열정과 향유의 긴밀한 연결성을 고려할 때, BAS가 이원 열정을 경유해 양극성 장애 증상에 이르는 모형에 향유의 이론적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보상과 목표의 획득을 위해 발생하는 BAS의 동기와 추동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한 열정적 추구로 나타난다. 열정은 흥분,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 정서 형태로 경험될 수 있으며,

긍정 정서에 대한 적응적 조절 전략인 향유가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향유의 적용 가능성이 열정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삶의 영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강박열정은 향유를 차단하여 BAS 민감성이라는 본래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양극성 장애 증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자기 체계와 통합되어 있는 조화열정은 향유를 촉진하여 행복을 강화하고 삶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양극성 장애와 같은 병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이미 밝혀진 취약성 요인인 BAS 민감성이 양극성 장애로 이어지는 중간 기제를 열정의 질과 그에 따른 향유 가능성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되, 악화 경로와 완화 경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BAS 민감성이 보상 추구 활동을 강박열정으로 이끌면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극성 장애 증상을 증가시킨다(즉, 악화 경로). 반면,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향유 가능성이 높아지고, 양극성 장애 증상을 감소시킨다(즉, 완화 경로). 이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 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가설은 이원 열정에 따라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보듯이, BAS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를 이원 열정과 향유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되, 그 적응적 결과는 열정의 유형과 그에 따른 향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설 1. 병리 악화 경로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중 하나로,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의 가능성이 낮아져 양극성 장애 증상은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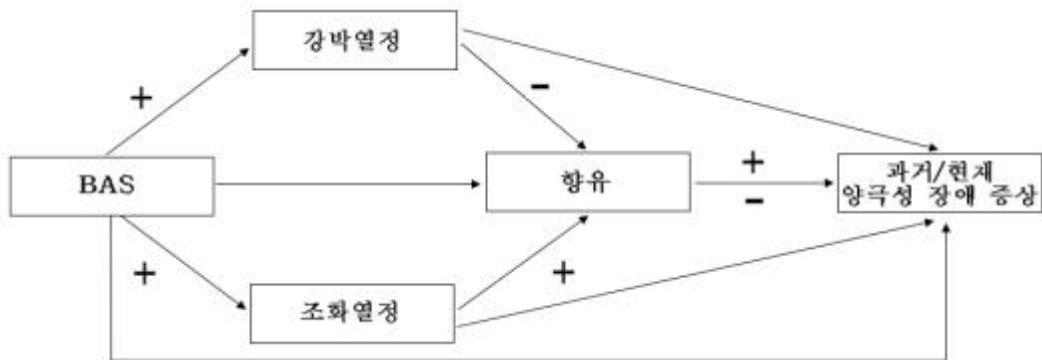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2. 병리 완화 경로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중 하나로, BAS가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의 가능성이 높아져 자원화되므로 양극성 장애 증상은 감소할 것이다.

남자 109명(26.1%)이었고, 평균 연령은 36.36세 ($SD=11.52$), 평균 교육연한은 13.87년($SD=2.08$)이었다.

측정도구

방법

참여자

서울에 소재한 사이버대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 남녀 재학생들이 3주간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집 인원 총 450명 중 아래 소개할 척도인 열정 준거에서 평균 4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418명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료 수집 기간 중 온라인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심리학 수강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활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설문에 참여했다. 참여자에게는 일정한 가산점이 부여되었고, 설문 참여가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 과제로 동일한 가산점을 받도록 하였다. 여자 309명(73.9%),

남자 109명(26.1%)이었고, 평균 연령은 36.36세 ($SD=11.52$), 평균 교육연한은 13.87년($SD=2.08$)이었다.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척도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 BAS/BIS Scale). 행동과 정서에 기초한 동기 체계로 Gray(1981, 1982)가 제안한 이론에 근거하여 Carver와 White(1994)가 제작하였으며, 김교현과 김원식(2001)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된다. 보상 민감성, 재미추구, 추동의 BAS 소척도 3개와 BIS 소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BAS 소척도 13문항만 사용하였기에 총점의 범위는 13~52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보상 민감성, 접근 동기, 즐거움 추구 경향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김교현과 김원식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보상 민감성이 .85, 추동이 .87, 재미추구가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9, .78, .80이었으며, BAS 전체는 .86이었다.

한국판 향유 신념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avoring Beliefs Inventory [SBI]).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음미함으로써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Bryant(2003)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현석 등(2010)이 변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구성으로, 현재 순간을 향유하는 능력(savoring the moment), 과거 경험을 회상하면서 향유하는 능력(reminiscing), 미래에 예상되는 일을 향유하는 능력(anticipating)으로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별로 4개의 순채점과 4개의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한다. 총점 범위는 24~168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개인이 긍정적 경험을 주의 깊게 음미하고 즐거움을 유지·증폭시키며 과거·현재·미래의 긍정 정서를 자원화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총점이 낮을수록 긍정 경험을 온전히 즐기거나 지속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나타낸다. 조현석 등(2010)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으며, 본 연구는 .93으로 나타났다.

열정 준거(Passion Criteria). 활동에 대한 열정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Marsh 등(2013)이 사용하고 홍민성 등(2016)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 하나를 떠올린 뒤에, 척도에 응답하였다. 해당 활동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 좋아함, 가치평가, 열정의 수준을 묻는 4개 문항(예: “이 활동은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에 걸친 리커트 척도상에 평

정하였다. 열정이란 ‘개인이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에 강하게 이끌리는 현상’을 의미하기에, 총점의 평균이 4점이 안될 경우에는 열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홍민성 외, 2016; Vallerand & Houlfort, 2003).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열정 척도(Passion Scale). Vallerand 등(2003)이 열정의 측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Marsh 등(2013)이 수정하여 검증하고 홍민성 등(2016)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에 걸친 리커트 척도상에서 평정된다. 척도의 내용은 조화열정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예: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 강박열정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예: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인 조화 및 강박열정의 총점 범위는 각각 6~42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특정 활동에 대한 열정의 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화열정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이 자율적으로 내면화되어 자기 체계와 통합되어 있으며, 정서·행동적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강박열정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이 통제적으로 내면화되어 자기 가치나 조건부 자존감에 의해 유지되며, 갈등·반추·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된 역기능적 특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열정을 느끼는 활동을 한가지 떠올리도록 요청받았으며 그 활동을 생각하면서 응답하라는 별도의 지시문(열정이란 ‘내가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에 강하게

이끌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정을 느끼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쓸게 되며, 열정이 있는 활동은 나를 정의하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일, 학업, 창작, 정치활동, 종교활동, 취미생활, 여가활동, 사랑, 운동하기, 스포츠 응원, 도박, 컴퓨터 게임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열정을 느끼는 활동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떠올린 그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보십시오.)을 읽은 후 설문에 참가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조화열정 .90, 강박열정 .84였다.

내적 상태 척도(The Internal State Scale [ISS])에서 '활성화 소척도'. 본 연구의 종속 변인 중 하나인 현재의 양극성 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ISS는 양극성 장애 환자들의 기분상태 식별을 위하여 타당화된 검사(Bauer et al., 2000)로 조증 및 우울증 증상의 동시 발생을 평가할 수 있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원척도에서는 0부터 100까지 평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장연주(202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0(전혀 그렇지 않다)~10(매우 그렇다)점으로 평정하였다. 웰빙(Well-Being), 활성화(Activation), 우울 지수(Depression Index), 지각된 갈등(Perceived Conflict)의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소척도 5문항을 사용했다. 총점 범위는 5~50점으로, 높은 점수는 조증·경조증 스펙트럼에 가까운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며, 낮은 점수는 안정된 비활성화 상태를 시사한다. 활성화 소척도는 행동과 인지가 활성화되는 고조된 감각을 반영하며, 조증과 활성화 소척도에

대한 임상가 평정 사이에 특정하고 높은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Bauer et al., 1991; Udachina & Mansell, 2007). 본 연구에서 활성화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9였다.

한국판 양극성 스펙트럼 진단척도(Korean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 [K-BSDS]). 또 다른 종속 변인으로 과거 양극성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Ghaemi 등(2005)에 의하여 타당화된 척도로,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 가벼운 증상을 지닌 집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도구이다. 왕희령 등(2008)의 번안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실시는 2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에서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사례를 통해 우울 삽화, 조증 삽화, 기분 변화 전환 등의 내용을 제시한 뒤 자신과 부합한 정도를 평정한다. '나와 아주 잘 들어맞는다'(6점으로 코딩), '나와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4점), '나와 어느 정도 들어맞기는 하나, 대부분은 맞지 않는다'(2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0점)로 응답한다. 자신에게 부합된다고 응답한 경우(2, 4, 6점)에는 두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사례의 증상을 19개 개별 문항으로 나누어서 다시 제시하고 자신의 해당 여부(해당됨/안됨)를 평정하게 된다. 총점은 0점에서 25점까지 산출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과거에 경험한 양극성 스펙트럼 증상이 많고 그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높은 점수는 기분의 급격한 전환, 에너지 수준 변화, 경조증적 행동 및 정서적 고양과 같은 평생 기분 변동성을 반영하여 양극성 장애 발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총점이 낮을수록 과거 양극성 관련 증상이 적

거나 거의 없어 양극성 스펙트럼 특성이 약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19개 증상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분석 방법

SPSS 25.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을 분석했고, 주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 3.5(Hayes, 2020) 80번 모형을 적용했다. BAS가 강박열정을 통해 향유의 감소로 이어져 양극성 장애 증상의 증가로 나타나는 병리 악화 경로와, BAS가 조화 열정을 통해 향유의 증가로 이어져 양극성 장애 증상의 감소로 나타나는 병리 완화 경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어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이때 나이·성별·교육연한을 공변량으로 통제함으로써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이는

해당 변인들이 매개 및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혼입변인이기 때문이다(이일현, 2014). 나이와 교육연한은 연속변수로, 성별은 이분형 더미변수(남=0, 여=1)로 처리하였다. 실제로 양극성 장애에 관한 체계적 개관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 통제의 중요성이 보고되었다 (Giménez-Palomo et al., 2024). 또한, 종속 변인을 과거 및 현재의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두 번 검증하였다. 양극성 장애는 진단 기준에 따라 과거 조증 삼화로 정의되므로 과거의 병력 위주로 평가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양극성 장애 증상을 함께 고려했다.

결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6)의 정규성 가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418$)

	1	2	3	4	5	6
1. 행동 활성화 체계	–					
2. 조화열정	.102*	–				
3. 강박열정	.295**	.121*	–			
4. 향유	.179**	.247**	-.132**	–		
5. 현재 양극성 증상	.386**	-.018	.238**	-.101*	–	
6. 과거 양극성 증상	.437**	-.105*	.214**	-.174**	.358**	–
최소값	20.00	8.00	6.00	59.00	5.00	0.00
최대값	52.00	42.00	42.00	168.00	45.00	24.00
평균	36.73	32.92	21.09	124.16	8.38	20.20
표준편차	6.19	6.12	7.71	19.97	6.51	8.81
왜도	0.21	-0.62	0.13	-0.35	0.25	0.15
첨도	-0.18	0.40	-0.57	-0.25	-0.89	-0.38

* $p<.05$. ** $p<.01$.

정 기준인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3과 7이 모든 변인에서 충족되었다.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을 보면, 행동 활성화 체계는 조화열정, 강박열정, 향유,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102, p<.05$; $r=.295, p<.01$; $r=.179, p<.01$; $r=.386, p<.01$; $r=.437, p<.01$. 조화열정은 강박열정, 향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r=.121, p<.05$; $r=.247, p<.01$,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r=-.018, p=.71$,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r=-.105, p<.05$. 강박열정은 향유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r=-.132, p<.01$, 현재 및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r=.238, p<.01$; $r=.214, p<.01$. 향유는 현재 및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r=-.101, p<.05$; $r=-.174, p<.01$,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은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r=.358, p<.01$.

과거의 양극성 장애 증상을 종속 변인으로 한 다중매개효과

BAS가 조화열정과 향유로 이어지는 경로와 강박열정과 향유로 이어지는 경로로 구성되는 다중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단계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1단계에서 BAS는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쳤으며, $B=0.455, t=9.298, p<.001$,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변량의 21.4%를 설명하였다, $R^2=.214, F(4, 418)=28.101, p<.001$. 2단계에서

BAS는 첫 번째 매개 변인인 강박열정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고, $B=0.417, t=7.189, p<.001$, 3단계에서 조화열정에도 유의한 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B=0.146, t=3.055, p<.01$. 4단계로 BAS와 강박 및 조화열정을 동시에 투입하여 향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BAS는 향유에 정적 효과를 보였고, $B=0.804, t=5.012, p<.001$, 조화열정도 향유에 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B=0.738, t=4.779, p<.001$, 강박열정은 향유에 부적 효과를 나타냈다, $B=-0.639, t=-5.017, p<.001$.

최종적으로 5단계에서 독립 변인인 BAS와 매개 변인인 강박 및 조화열정, 향유를 동시에 모두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BAS는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에 정적 효과를 보였고, $B=0.462, t=9.369, p<.001$, 조화열정과 향유는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B=-0.096, t=-2.022, p<.05$; $B=-0.069, t=-4.709, p<.001$, 강박열정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0.076, t=1.947, p=.052$. 1단계에서 BAS만을 고려했을 때는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의 21.4%를 설명했으나, 매개 변인을 모두 포함하자 설명량은 28.6%로서, $R^2=.286, F(7, 418)=23.457, p<.001$, 1단계에 비해 7.2% 더 증가되었다.

단계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연결 마디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들이 유의하였다. 강박 및 조화열정이 각각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효과의 마디들만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의 연구 모형에서 가정한 주요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고 음과 양의 방향도 일치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95%의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표 3에서 보듯이 BAS가 이원 열정과 향유를 순차적

으로 거쳐서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에 이르는 두 개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의 가능성이 낮아져 자원화되지 못하므로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병리 악화 경로의 간접효과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0.018$, 95% CI [0.008, 0.032], BAS가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향

표 2. BAS와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강박 및 조화열정, 향유의 다중매개효과(통제변인: 성별, 연령, 교육연한)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	SE	β	t	R^2	F
1단계(독립→종속)							
성별		0.677	0.651	0.046	1.040		
나이	→ 과거 양극성	-0.079	0.026	-0.139	-3.063**	.214	28.101***
교육연한	장애 증상	-0.108	0.141	-0.035	-0.769		
행동활성화체계(BAS)		0.435	0.047	0.414	9.293***		
2단계(독립→매개1-1)							
성별		0.311	0.807	0.018	0.386		
나이	→ 강박열정	0.153	0.032	0.229	4.808***	.137	16.447***
교육연한		-0.032	0.175	-0.009	-0.182		
행동활성화체계		0.417	0.058	0.335	7.189***		
3단계(독립→매개1-2)							
성별		0.929	0.666	0.067	1.394		
나이	→ 조화열정	0.085	0.026	0.161	3.254***	.069	7.623***
교육연한		0.393	0.144	0.133	2.723**		
행동활성화체계		0.146	0.048	0.148	3.055**		
4단계(독립, 매개1-1, 매개1-2→매개2)							
성별		0.272	2.093	0.006	0.130		
나이		0.131	0.085	0.075	1.531		
교육연한	→ 향유	0.742	0.456	0.077	1.629		
행동활성화체계		0.804	0.160	0.249	5.012***	.145	11.605***
강박열정		-0.639	0.127	-0.247	-5.017***		
조화열정		0.738	0.154	0.226	4.779***		
5단계(독립, 매개1-1, 매개1-2, 매개2→종속)							
성별		0.795	0.625	0.054	1.273		
나이		-0.075	0.026	-0.133	-2.952**		
교육연한		0.005	0.136	0.001	0.034		
행동활성화체계	→ 과거 양극성	0.462	0.049	0.439	9.369***	.286	23.457***
강박열정	장애 증상	0.076	0.039	0.090	1.947		
조화열정		-0.096	0.047	-0.090	-2.022*		
향유		-0.069	0.015	-0.212	-4.709***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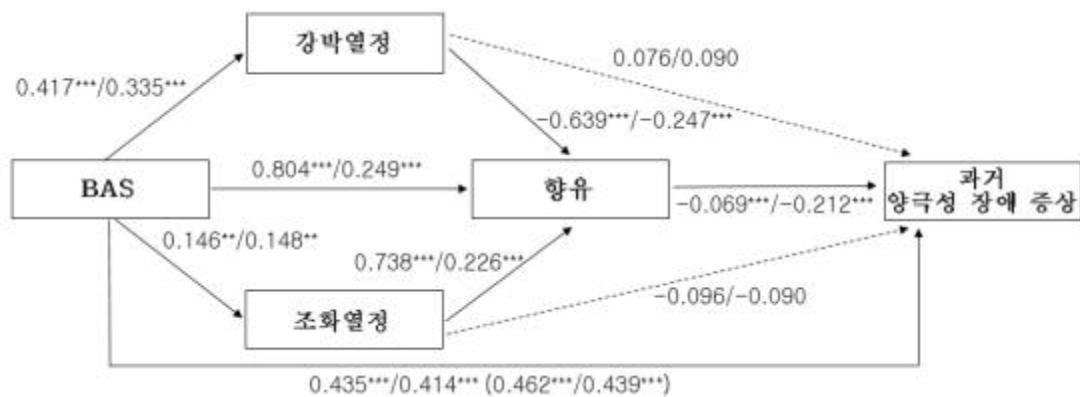


그림 2 BAS와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다중매개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괄호 안은 직접효과)
* $p<0.1$. ** $p<0.05$. *** $p<0.01$.

표 3. BAS와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다중매개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95% CI ^a	
			하한	상한
총 효과(Total Effect)	0.435	0.047	0.343	0.527
직접 효과(Direct Effect)				
BAS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462	0.049	0.365	0.559
간접 효과(Indirect Effect)				
BAS → 강박열정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032	0.018	-0.001	0.070
BAS → 조화열정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014	0.010	-0.036	0.001
BAS → 향유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056	0.018	-0.093	-0.025
BAS → 강박열정 → 향유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018	0.006	0.008	0.032
BAS → 조화열정 → 향유 →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	-0.007	0.004	-0.017	-0.002
간접효과 합	-0.027	0.026	-0.079	0.025

주. CI=Confidence Interval.

^a CI = 10,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함.

유의 가능성성이 높아져 자원화 되므로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병리 완화 경로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007$, 95% CI [-0.017, -0.002]. 즉, BAS가 과거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원 열정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AS와 과거 양극성 증상의 관계에서 단순매개효과는 달랐다.

강박열정과 조화열정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0.032$, 95% CI [-0.001, 0.070], $B=-0.014$, 95% CI [-0.036, 0.001], 향유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B=-0.056$, 95% CI [-0.093, -0.025].

현재의 양극성 장애 증상을 종속 변인으로 한 디중매개효과

현재의 양극성 장애 증상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BAS가 강박열정과 향유로 이어지는 경로와 조화열정과 향유로 이어지는 경로를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를 제

시한 것이 그림 3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의 연결 마디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조화열정이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효과만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 모형에서 가정했던 주요 경로들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음과 양의 방향도 일치하였다. BAS만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의 15.6%를 설명했으나, 매개 변

표 4. BAS와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디중매개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95% CI ^a	
			하한	상한
총 효과(Total Effect)	0.531	0.066	0.402	0.660
직접 효과(Direct Effect)				
BAS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515	0.071	0.376	0.654
간접 효과(Indirect Effect)				
BAS → 강박열정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060	0.027	0.010	0.115
BAS → 조화열정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004	0.012	-0.031	0.016
BAS → 향유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048	0.021	-0.093	-0.013
BAS → 강박열정 → 향유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016	0.007	0.004	0.032
BAS → 조화열정 → 향유 →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	-0.007	0.004	-0.015	-0.001
간접효과 합	0.017	0.034	-0.051	0.083

주. CI=Confidence Interval.

^a CI = 10,000번의 bootstrapping을 통해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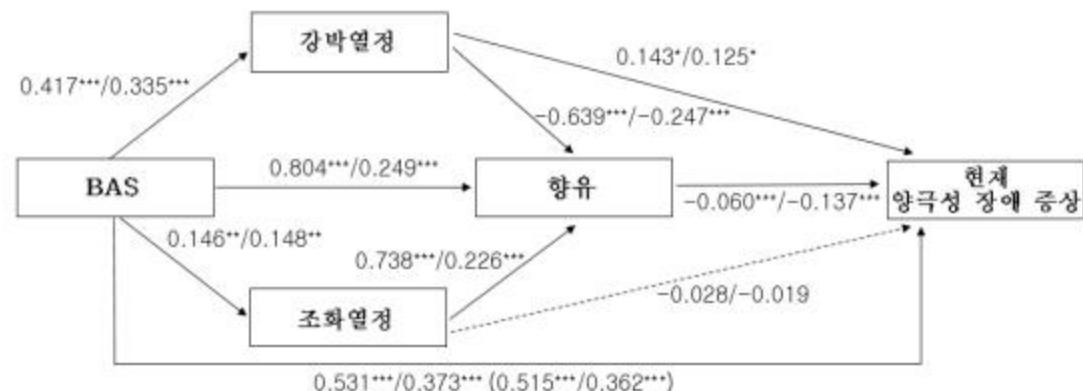


그림 3. BAS와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디중매개 모형의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괄호 안은 직접효과)

* $p<0.05$. ** $p<0.01$. *** $p<0.001$.

인을 병렬 및 순차로 모두 포함하자 설명 변량은 19.5%로서, $R^2=19.5\%$, $F(7, 418)=14.179$, $p<.001$, 3.9%가 더 증가되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통해 95%의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표 4에서 보듯이 BAS가 이원 열정과 향유를 순차적으로 거쳐서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의 가능성이 낮아져 자원화 되지 못하므로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병리 악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 $B=0.016$, 95% CI [0.004, 0.032], BAS가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의 가능성이 높아져 자원화 되므로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이 감소할 것이라는 병리 완화 경로의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B=-0.007$, 95% CI [-0.015, -0.001]. 즉, BAS가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원 열정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BAS와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단순매개효과는 달랐다. 조화열정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0.004$, 95% CI [-0.031, 0.016], 강박열정과 향유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B=0.060$, 95% CI [0.010, 0.115], $B=-0.048$, 95% CI [-0.093, -0.013].

논의

인간이 바라는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동기 체계인 BAS는 열정과 같은 긍정 정서로 연결될 수 있다. 문제는, 열정에는 두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BAS가 조화열정으로 이어지면 순

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질 때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일빙(ill-being)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신경생물학적 취약성으로 밝혀진 BAS가 이원 열정으로 이어질 때 향유를 매개로 하여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가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S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를 이원 열정과 향유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되, 그 적응적 결과는 열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스트레스와 역경에 수반되는 부정 정서를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건에 수반되는 긍정 정서도 조절해야 하는데(Gross, 1999), 열정이 자기 체계와 통합된 정도에 따라서 열정적 추구에 동반되는 긍정 정서에 대한 조절 전략으로서 향유의 가능성성이 달라졌다.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질 경우 향유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양극성 장애 증상이 증가하는 결과는, 조건부 자존감을 기반으로 한 강박열정이 사회적 인정 욕구나 우월감과 같은 자아의 욕구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향유를 방해한다는 이론(Bryant & Veroff, 2007)을 재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강박열정이 회상된 긍정적 사건이나 미래의 긍정적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긍정 정서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찬물끼얹기(dampening)와 정적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Schellenberg & Gaudreau, 2020)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강박열정이 향유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내면화되는 방식, 활동의 상태적 중요성, 자기

통합의 진정성 여부, 자존감의 유형 등에서 상반된 특성을 지닌다. 특히, 강박열정의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양극성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대인, 황성훈, 2025).

가설별로 자세히 검토해 보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로 BAS가 강박열정으로 이어지면 향유 전략을 적용하지 못해 긍정 정서를 자원화하지 못하므로 양극성 장애 증상이 증가한다는 악화 경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BAS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가 악화 및 완화 경로로 구분된 것처럼, 기존의 열정 연구에서도 이원 열정이 웰빙 및 일빙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Vallerand, 2015). 열정의 이원론적 모델은 조화열정이 적응적 자기 조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반면, 강박열정은 이러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시사한다(Schellenberg et al., 2013; St-Louis et al., 2018; Vallerand 2015; Verner-Filion et al., 2014). 이는 긍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보이는 반응의 차이가 활동에 대한 열정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Schellenberg와 Gaudreau(202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능감이나 우월감과 같은 자아의 욕구에 과도하게 몰두할 경우 오히려 향유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Bryant & Veroff, 2007)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강박열정이 향유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강박열정은, 갈등적이고 반추적인 특성으로 인해 모순적이며 양가적인 성향을 지니므로(Carpentier et al., 2012; Vallerand, 2015; Vallerand & Houlfort, 2003), 향유의 가능성이 낮다.

두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BAS가 조화열정으로 이어질 경우 긍정 정서에 대한 적응적 조절 전략

으로서 향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자원화함으로써 양극성 장애 증상이 감소한다는 완화 경로도 지지되었다. 이는 긍정 정서를 자원화하여 지속시키는 향유가 양극성 장애 증상을 감소시키고 주관적 안녕감은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정영주 외, 202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향유는 긍정 경험을 정서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지적 경험의 균형적 자기 감찰을 통해 긍정 정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Bryant & Veroff, 2007), 열정의 영향을 순화하고 양극성 장애 증상을 완화한다.

주요 결과에 이어 추가적으로 BAS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이원 열정과 향유의 단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조화열정의 부적 매개효과는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았으나 강박열정은 현재 양극성 장애 증상에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향유는 일관되게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 순차매개효과가 아닌 단일 변인에 의한 단순매개효과로, 조화열정의 완화적 경로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강박열정의 악화적 경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AS와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강박열정의 병리적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향유의 일관된 단순매개효과는 BAS가 보상과 목표 추구를 동기화하여 긍정 정서를 유발하고(Depue & Iacono, 1989; Johnson et al., 2000) 이에 대해 적응적 긍정 정서 조절 전략인 향유를 적용함으로써 양극성 장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S가

양극성 장애 증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중간 기제로서 열정과 그에 따른 긍정 정서의 조절 전략인 향유를 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기존 BAS와 양극성 장애의 관계를 확장하여 BAS에 의해 동기화되는 목표 및 보상의 추구가 열정화될 때, 자기 체계와의 통합 정도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작용함을 보였다. 즉, 통합 정도가 높으면 긍정 정서를 향유할 수 있는 조화열정으로 이어져 양극성 장애 증상을 완화하지만, 통합된 정도가 낮으면 향유 가능성은 낮고 대신 갈등, 모순, 반추 등을 유발하는 강박열정으로 이어져서 양극성 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 양극성 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BAS 민감성 및 조절 곤란(김빛나, 2016; 장윤정, 황성훈, 2019; Alloy et al., 2016; Dodd et al., 2013; Hamaker et al., 2016; Kim, 2020), 긍정 정서 조절 곤란(Dodd et al., 2019; Kraiss et al., 2019; McGrogan et al., 2019, 2021; Painter et al., 2019), 목표 조절 곤란(Fulford et al., 2010; Fulford et al., 2015; Johnson & Fulford, 2009; Johnson, Fulford, et al., 2012), 열정 조절 곤란(이대인, 황성훈, 2025), 그리고 열정의 산물인 긍정 정서에 대한 조절전략으로서 향유의 기능(Schellenberg & Gaudreau, 2020; Schellenberg et al., 2022)을 통합적으로 연결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극성 장애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서 기복(정서적 불안정성)이 핵심 기제일 수 있다. BAS에 의해 목표와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는 긍정 정서가 동반되지만, 소극적으로 전환될 경우 부정 정서가 수반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서 기복이 형성될 수 있다(황성훈,

2019). 또한, 목표 조절 및 열정 조절 곤란은 통합 인지 모형(Mansell et al., 2007)에 따라 정서 기복을 심화시켜 양극성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보상과 목표 추구가 조화열정으로 연결되고 이를 향유할 때 양극성 장애 증상이 감소한다는 점은, 조화열정과 향유가 양극성 장애에 있어 중요한 보호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BAS 민감성과 조절 곤란이 양극성 장애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열정의 질적 전환과 함께 향유 능력을 촉진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박열정은 조건부 자존감(Mageau et al., 2011), 낮은 마음챙김(St-Louis et al., 2018), 높은 반추 성향(Carpentier et al., 2012; Vallerand et al., 2003)과 관련되어 있어, 부정 정서가 높고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긍정 경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향유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대인과 황성훈(2025)은 강박열정이 정서적 불안정성을 매개로 양극성 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탈중심화(decentering, Bernstein et al., 2019)’가 정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강박열정을 조화열정으로 전환하는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Bryant와 Veroff(2007) 역시 긍정적 경험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즉, 상위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의가 분산되지 않을 때 온전한 즐거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강박열정에 대한 개입은 먼저 탈중심화를 통해 정서적 불안정성을 낮추고 상위 자각을 높임으로써 향유를 가능케 해야 한다. 즉, ‘선(先) 탈중심화, 후(後) 향유’ 전략은 강박열정이 양극성

장애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 및 치료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탈중심화와 향유의 이러한 순차적 조합은, 마음챙김의 결과로 재평가와 향유가 일어나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제감을 높이는 의미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마음챙김 의미 이론(Mindfulness-to-Meaning Theory [MMT], Garland, 2015)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탈중심화와 향유에 따른 정서 조절 전략은, BAS 활성화로 촉발된 긍정 정서가 긍정 반응에 의해 증폭되었다가 이어서 찬물끼얹기에 의해 감소되는 연쇄 작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분 기복을 형성하여 양극성 장애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 선행연구(장윤정, 황성훈, 2019; 정영주 외, 2022)에 대한 적응적 개입 전략도 될 수 있다.

향유는 긍정 정서를 과거·현재·미래로 넘나들며 음미할 수 있고 개인의 순간 긍정 정서 상태에 따라 끌어오거나 자원으로 비축하기도 하는 유연하고 균형 잡힌 정서 조절 전략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긍정 경험에 대한 ‘자각’은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의 소멸과 관련되며,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향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처럼 향유는 긍정 경험들을 정서로 전환하는 핵심 연결 고리로, 정서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ryant & Veroff, 2007). 특히, 향유 전략 중 긍정적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타인의 눈에 비춰진 자기 인식을 향상시켜 자존감(Gable et al., 2004)과 삶의 만족도(Quoidbach et al., 2010)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의 발견과 연결해 보면, 불안정한 조건부 자존감을 지닌 강박열정에게 향유가 더 근원적인 치료기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BAS가 이원 열정과 향유를 매개로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병리적 악화 경로 및 완화 경로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BAS가 단순히 긍정적 동기의 근원지가 아니라, 매개되는 열정의 질에 따라 보호 요인 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BAS를 보상 민감성과 조절 곤란(김빛나, 2016; 장윤정, 황성훈, 2019; Alloy et al., 2016; Depue & Iacono, 1989; Dodd et al., 2013; Hamaker et al., 2016; Kim, 2020)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접근을 넘어 동기·열정·정서 조절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원 열정 모델(Dualistic Model of Passion)과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Deci & Ryan, 2000)의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BAS 민감성이 곧바로 병리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상 단서를 내면화하는 질적 방식에 따라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자율적 내면화를 통해 형성된 조화열정은 긍정적 경험을 자기 체계에 안정적으로 통합하여 적응적 결과를 촉진하는 반면, 통제적 내면화에 기초한 강박열정은 불안정한 자기 체계로 인해 병리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견은 양극성 장애의 예방과 개입 전략에서 BAS 민감성 그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유형의 열정으로 구체화되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조절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밀한 심리평가와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가 갖는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 연구를 위한 전 단계로서, 사이버대생 중 양극성 장애 증상을 가진 준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에 치우친 표집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성인 표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의 양극성 장애 병력은 별도로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임상 진단을 받은 양극성 장애 집단으로 확대하여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균등한 성별 표본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설계상으로는 단일 시점에서 이루어진 획단적 모형 검증이므로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간의 시간 간격을 두는 종단적인 설계를 시도한다면 인과관계에 대한 진술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극성 장애 증상에 대한 대안적인 측정 도구를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양극성 장애 증상을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지 않고, 과거 양극성 병력과 현재 양극성 증상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는 YMRS(Young Mania Rating Scale, Young et al., 1978)와 같은 임상가 평정이나 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양극성 장애 발현의 위험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경조성 성격 척도 (Hypomanic Personality Scale [HPS], Eckblad & Chapman, 1986)의 사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 단 연구에 따르면 HPS 점수가 높을수록 진단된 양극성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Kwapis et al., 2000).

셋째, 평면적인 모형 검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향후에는 향유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성과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Bryant와 Veroff(2007)는 부정적 경험에 대처하고 긍정적 경험을 향유하는 데 기여하는 여섯 가지 인지·행동적 구성개념으로 사회적 지지(다른 사람과 감정

공유하기), 생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의미 발견하기, 하향식 비교하기, 유머 감각을 활용하기, 영성이나 신앙심을 갖기, 인생의 무상함을 자각하기를 소개하였다. 부정적 경험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긍정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토대로 설계하되, 대조군을 두고 차별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양극성 장애의 취약성인 BAS가 이원 열정과 향유에 따라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과 그 완화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자기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긍정 경험마저도 향유하기 어려워 결국은 병리적 삶에 이를 수 있기에, 자신의 경험을 자각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https://accesson.kr/healthpsy/assets/pdf/27371/6-2-\(2\).pdf](https://accesson.kr/healthpsy/assets/pdf/27371/6-2-(2).pdf)

김빛나 (2016). 양극성 장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동 활성화체계 모형의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https://doi.org/10.23170/snu.000000132346.11032.0000914>

왕희령, 김상익, 강시현, 주연호, 김창운 (2008).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한국어판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의 타당성 연구. *대한 신경정신의학*, 47(6), 533-539. <https://kmbase.medric.or.kr/KMID/03>

68820080470060533

이대인, 황성훈 (2025). 열정도 병인가?: 강박열정과 양극성 장애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적 불안정성의 매개효과와 탈중심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0(5), 891-920. <http://doi.org/10.17315/kjhp.2025.30.5.006>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아카데미*. <https://www.riss.kr/link?id=M13432738>

장연주 (2020). 경조증 태도 및 긍정 예측 검사의 타당화: 양극성 장애 증상과 기분 기복에 대한 통합적 인지 모형의 검증 [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https://www.riss.kr/link?id=T15454175>

장윤정, 황성훈 (2019). 행동활성화체계와 양극성 장애 경향의 관계에서 긍정반추와 찬물끼얹기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4), 339-362. <http://doi.org/10.15842/cprp.2019.5.4.39>

정영주, 황성훈, 이정미 (2022). 긍정 정서에 대한 반응이 양극성 증상에 미치는 영향: 긍정 반추 대 향유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2), 291-312. <http://doi.org/10.17315/kjhp.2022.27.2.007>

조현석, 권석만, 임영진 (2010). 한국판 향유신념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29(2), 349-365. <https://doi.org/10.15842/kjcp.2010.29.2.001>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한국판 열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1-26. <http://doi.org/10.21193/kjspp.2016.30.2.001>

황성훈 (2019). 행동 활성화 체계(BAS)의 두 측면이 양극성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BAS 민감성 대 조절 곤란 가설의 비교.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Alloy, L. B., Abramson, L. Y., Walshaw, P. D., Cogswell, A., Grandin, L. D., Hughes, M. E., Iacoviello, B. M., Whitehouse, W. G., Urošević, S., Nusslock, R., & Hogan, M. E. (2008). Behavioral approach system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sensitivities and bipolar spectrum disorders: Prospective prediction of bipolar mood episodes. *Bipolar Disorders*, 10(2), 310-322. <https://doi.org/10.1111/j.1399-5618.2007.00547.x>

Alloy, L. B., Abramson, L. Y., Walshaw, P. D., Cogswell, A., Smith, J. M., Neeren, A. M., Hughes, M. E., Iacoviello, B. M., Gerstein, R. K., Keyser, J., Urošević, S., & Nusslock, R. (2006). Behavioral approach system (BAS) sensitivity and bipolar spectrum disorders: A retrospective and concurrent behavioral high-risk design. *Motivation and Emotion*, 30(2), 143-155. <https://doi.org/10.1007/s11031-006-9003-3>

Alloy, L. B., Olino, T., Freed, R. D., & Nusslock, R. (2016). Role of reward sensitivity and processing in major depressive and bipolar spectrum disorders. *Behavior Therapy*, 47(5), 600-621. <https://doi.org/10.1016/j.beth.2016.02.014>

Balconi, M., Vanutelli, M. E., & Grippa, E. (2017). Resting state and personality component (BIS/BAS) predict the brain activity (EEG and fNIRS measure) in response to emotional cues. *Brain and Behavior*, 7(5), Article e00686. <https://doi.org/10.1002/brb3.686>

Bauer, M. S., Cries-Christoph, P., Ball, W. A., Dewees, E., Mcallister, T., Alahi, P., Cacciola, J., & Whybrow, P. C. (1991). Independent assessment of manic and depressive symptoms by self-rating: Scal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mani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9), 807-812. <https://doi.org/10.1001/archpsyc.1991.01810330031005>

Bauer, M. S., Vojta, C., Kinosian, B., Altshuler, L., & Glick, H. (2000). The Internal State Scale: replication of its discriminating abilities in a multisite, public sector sample. *Bipolar Disorders*, 2(2), 111-118. <https://doi.org/10.1111/j.1399-5618.2000.tb00022.x>

Disorders, 24), 340–346. <https://doi.org/10.1034/j.1399-5618.2000.020409.x>

Bernstein, A., Hadash, Y., & Fresco, D. M. (2019). Metacognitive processes model of decentering: Emerging methods and insight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8*, 245–251. <https://doi.org/10.31231/osf.io/zkjeb>

Bryant, F. B. (2003). Savoring Beliefs Inventory (SBI): A scale for measuring beliefs about savoring. *Journal of Mental Health, 12*(2), 175–196. <https://doi.org/10.1080/0963823031000103489>

Bryant, F. B., & Veroff, J. (1984). Dimensions of subjective mental health in American men and wo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2), 116–135. <https://doi.org/10.2307/2136664>

Bryant, F. B., & Veroff, J. (2007). *Savoring: A new model of positive experi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20*(6), 880–884. <https://doi.org/10.1108/09534810710831073>

Carpentier, J., Mageau, G. A., & Vallerand, R. J. (2012). Ruminations and flow: Why do people with a more harmonious passion experience higher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501–518. <https://doi.org/10.1007/s10902-011-9276-4>

Ca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319–333. <https://doi.org/10.1037/0022-3514.67.2.319>

Colombo, D., Pavani, J-B., Fernandez-Alvarez, J., Garcia-Palacios, A., & Botella C. (2021). Savoring the present: The reciprocal influence between positive emotions and positive emotion regulation in everyday life. *PLoS ONE, 16*(5), Article e025156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1561>

Davidson, R. J. (2000). Affective style,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brain mechanisms and plasticity. *American Psychologist, 55*(11), 1196–1214. <https://doi.org/10.1037/0003-066x.55.11.1196>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Dempsey, R., Gooding, P., & Jones, S. (2017). A prospective study of bipolar disorder vulnerability in relation to behavioural activation, behavioural inhibition and dysregulation of the Behavioural Activation System. *European Psychiatry, 44*, 24–29. <https://doi.org/10.1016/j.eurpsy.2017.03.005>

Depue, R. A., & Iacono, W. G. (1989). Neurobehavioral aspects of affective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1), 457–492. <https://doi.org/10.1146/annurev.ps.40.020189.002325>

Dodd, A., Lockwood, E., Mansell, W., & Palmier-Claus, J. (2019).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bipolar disorder: A systematic and critical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46*, 262–284. <https://doi.org/10.1016/j.jad.2018.12.026>

Dodd, A. L., Mansell, W., Beck, R. A., & Tai, S. J. (2013). Self appraisals of internal states and risk of analogue bipolar symptoms in student samples: evidence from standardised behavioural observations and a diary stud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7*(5), 981–995. <https://doi.org/10.1007/s10608-013-9541-4>

Eckblad, M., & Chapman, L. G. (198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hypoman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3), 214–222. <https://doi.org/10.1037/0021-843X.95.3.214>

Fowles, D. C. (1988). Psychophysiology and psychopathology: A motivational approach. *Psychophysiology, 25*(4), 373-391. <https://doi.org/10.1111/j.1469-8886.1988.tb01873.x>

Fulford, D., Eisner, L. R., & Johnson, S. L. (2015). Differentiating risk for mania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nature of goal regulation and impulsivity. *Psychiatry Research, 227*(2-3), 347-352.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5.02.001>

Fulford, D., Johnson, S. L., Llabre, M. M., & Carver, C. S. (2010). Pushing and coasting in dynamic goal pursuit: Coasting is attenuated in bipolar disorder. *Psychological Science, 21*(7), 1021-1027. <https://doi.org/10.1177/0956797610373372>

Gable, S. L., Impett, E. A., Reis, H. T., & Asher, E. R. (2004). What do you do when things go right?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benefits of sharing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228-245. <https://doi.org/10.1037/0022-3514.87.2.228>

Garland, E. L., Farb, N. A., Goldin, P. R., Fredrickson, B. L. (2015). The Mindfulness-to-Meaning Theory: Extension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t the Attention-Appraisal-Emotion Interface. *Psychological Inquiry, 26*(4), 377-387. <http://www.jstor.org/stable/43865756>

Ghaemi, S. N., Miller, C. J., Rosenquist, K. J., Pies, R. W., Berv, D. A., & Klugman, J. (2005).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 new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4*(2-3), 273-277. [https://doi.org/10.1016/s0165-0327\(03\)00196-4](https://doi.org/10.1016/s0165-0327(03)00196-4)

Giménez-Palomo, A., Andreu, H., Olivier, L., Ochandiano, I., de Juan, O., Fernández-Plaza, T., Salmerón, S., Bracco, L., Colomer, L., Mena, J. I., Vieta, E., & Pacchiarotti, I. (2024). Clinical, sociodemographic and environmental predicting factors for relapse in bipolar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60*, 276-296. <https://doi.org/10.1016/j.jad.2024.05.064>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 (Ed), *A model for personality*(pp. 246-276). Springer-Verlag. https://doi.org/10.1007/978-3-642-67783-0_8

Gray, J. A. (1982). *The neuropsychology of anxiety: An inquiry into the functions of the septo-hypoamp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s000712500011373x>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3), 269 - 288. <https://doi.org/10.1080/02699939008410799>

Gross, J. J. (1999). Emotion regulation: Past, present, future. *Cognition & Emotion, 13*(5), 551-573. <https://doi.org/10.1080/026999399379186>

Guilford, J. P. (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9), 444-454. <https://doi.org/10.1037/h0063487>

Harmon-Jones, E., & Allen, J. J. (1997). Behavioral activation sensitivity and resting frontal EEG asymmetry: Covariation of putative indicators related to risk for mood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159-163. <https://doi.org/10.1037/0021-843x.106.1.159>

Harrauer, E. L., Grasman, R. P. P. P., & Kamphuis, J. H. (2016). Modeling BAS Dysregulation in Bipolar Disorder: Illustrating the Potential of Time Series Analysis. *Assessment, 23*(4), 436-446. <https://doi.org/10.1177/1073191116632339>

Hayes, A. F. (2020). PROCESS Macro (Version 3.5)[Computer Software]. <https://www.processmaestro.org/download.html>

Johnson, S. L., Edge, M. D., Holmes, M. K., & Carver, C. S. (2012).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mani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8, 243–267.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32511-143148>

Johnson, S. L., & Fulford, D. (2009). Preventing mania: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GOALS program. *Behavior Therapy*, 40(2), 103–113. <https://doi.org/10.1016/j.beth.2008.03.002>

Johnson, S. L., Fulford D., & Carver, C. S. (2012). The double-edged sword of goal engagement: Consequences of goal pursuit in bipolar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9(4), 352–362. <https://doi.org/10.1002/cpp.1801>

Johnson, S. L., Murray, G., Fredrickson, B., Youngstrom, E. A., Hinshaw, S., Bass, J. M., Deckersbach, T., Schooler, J., & Salloum, I. (2012). Creativity and bipolar disorder: Touched by fire or burning with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1), 1–12. <https://doi.org/10.1016/j.cpr.2011.10.001>

Johnson, S. L., Sandrow, D., Meyer, B., Winters, R., Miller, I., Solomon, D., & Keitner, G. (2000). Increases in manic symptoms after life events involving goal attain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4), 721–727. <https://doi.org/10.1037/0021-843X.109.4.721>

Kim, B. N. (2020).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dysregulation and bipolar spectrum psychopathology in daily life: An online-diary study. *Psychiatry Research*, 291, 113180.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3180>

King, L. A., Hicks, J. A., Krull, J. L., & Del 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1), 179–196. <https://doi.org/10.1037/0022-3514.90.1.179>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ublications. <https://doi.org/10.1177/1049731509336986>

Kraiss, J. T., ten Klooster, P. M., Chrispjin, M., Stevens, A. W. M. M., Kupka, R. W., & Bohlmeijer, E. T. (2019). Psychometric properties and utility of the responses to positive affect questionnaire in a sample of people with bipolar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10), 1850–1865. <https://doi.org/10.1002/jclp.22819>

Kwapis, T. R., Miller, M. B., Zinser, M. C., Chapman, L. J., Chapman, J., & Eckblad,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high scorers on the Hypomanic Personality Sca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2), 222–226. <https://doi.org/10.1037/0021-843X.109.2.222>

Mageau, G. A., Carpentier, J., & Vallerand, R. J. (2011). The role of self-esteem contingenc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6), 720–729. <https://doi.org/10.1002/ejsp.798>

Mansell, W., Morrison, A. P., Reid, G., Lowens, I., & Tai, S. (2007). The interpretation of, and responses to changes in internal states: an integrative cognitive model of mood swings and bipolar disorders.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5(5), 515–539. <https://doi.org/10.1017/s1352465807003827>

Marsh, H. W., Vallerand, R. J., Lafreniere, M. A. K., Parker, P., Morin, A. J. S., Carboneau, N., Jowett, S., Bureau, J. S., Fernet, C., Guay, F., Abduljabbar, A. S., & Paquet, Y. (2013). Passion: Does one scale fit all? Construct validity of two-factor passion scale and psychometric invariance over different activities and languag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96–809. <https://doi.org/10.1037/a0032573>

McGrogan, C. L., Dodd, A. L., & Smith, M. A. (2019).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mania risk: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12), 2106–2118. <https://doi.org/10.1002/jclp.22841>

McGrogan, C. L., Dodd, A. L., & Smith, M. A. (2021). Are context-specific measures of positive emotion regulation more predictive of mania risk and mood symptoms than trait measure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9*(5), 596–611. <https://doi.org/10.1017/s1352465820000855>

Meyer, B., Johnson, S. L., & Winters, R. (2001). Responsiveness to threat and incentive in bipolar disorder: Relations of the BIS/BAS scales with sympto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3), 133–143. <https://doi.org/10.1023/a:1010929402770>

Miklowitz, D. J., & Johnson, S. L. (2006). The psychopathology and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 199–23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2.022305.095332>

Murray, G., & Johnson, S. L. (2010).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creativity in bipolar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6), 721–732. <https://doi.org/10.1016/j.cpr.2010.05.006>

Painter, J. M., Mote, J., Peckham, A. D., Lee, E. H., Campellone, T. R., Pearlstein, J. G., Morgan, S., Kring, A. M., Johnson, S. L., & Moskowitz, J. T. (2019). A positive emotion regulation intervention for bipolar I disorder: Treatment development and initial outcomes. *General Hospital Psychiatry, 61*, 96–103. <https://doi.org/10.1016/j.genhosppsych.2019.07.013>

Quoidbach, J., Berry, E. V., Hansenne, M., & Mikolajczak, M. (2010). Positive emotion regulation and well-being: Comparing the impact of eight savoring and dampe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5), 368–373. <https://doi.org/10.1016/j.paid.2010.03.048>

Salavert, J., Caseras, X., Torrubia, R., Furest, S., Arranz, B., Dueñas, R., & San, L. (2007). The functioning of the Behavioral Activation and Inhibition Systems in bipolar I euthymic patients and its influence in subsequent episodes over an eighteen-month peri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323–1331. <https://doi.org/10.1016/j.paid.2006.10.010>

Schellenberg, B. J. I., & Gaudreau, P. (2020). Savoring and dampening with passion: How passionate people respond when good things happ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 921–941. <https://doi.org/10.1007/s10902-019-00114-w>

Schellenberg, B. J. I., Gaudreau, P., & Crocker, P. R. E. (2013). Passion and coping: Relationships with changes in burnout and goal attainment in collegiate volleyball player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5*(3), 270–280. <https://doi.org/10.1123/jsep.35.3.270>

Schellenberg, B. J. I., Verner-Filion, J., & Gaudreau, P. (2022). Savoring Sport: Connections With Athlete Passion and Burnout. *Journal of Clinical Sport Psychology, 16*(1), 23–41. <https://doi.org/10.31234/osf.io/6pj2n>

St-Louis, A. C., Rapaport, M., Poirier, L. C., Vallerand, R. J., & Dandeneau, S. (2021). O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well-being: The role of pass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2*, 1791–1818. <https://doi.org/10.1007/s10902-020-00296-8>

St-Louis, A. C., Verner-Filion, J., Bergeron, C. M., & Vallerand, R. J. (2018). Passion and mindfulness: Accessing adaptive self-process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3*(2), 155–164. <https://doi.org/10.1080/17439760.2016.1245771>

Udachina, A., & Mansell, W. (2007). Cross-validation of the Mood Disorde Questionnaire, the Internal State Scale, and the Hypomanic Personality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0–15. <https://doi.org/10.1016/j.paid.2006.09.001>

42(8), 1539–1549. <https://doi.org/10.1016/j.paid.2006.10.028>

Urošević, S., Abramson, L. Y., Harmon-Jones, E., & Alloy, L. B. (2008). Dysregulation of the behavioral approach system (BAS) in bipolar spectrum disorders: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188–1205. <https://doi.org/10.1016/j.cpr.2008.04.004>

Vallerand, R. J.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777600.003.0003>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https://doi.org/10.1037/0022-3514.85.4.756>

Vallerand, R. J., & Houlfort, N. (2003). Passion at work: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In. S. W. Gilland, D. D. Steiner, & D. P. Skarlicki (Eds.), *Emerging perspectives on values in organizations* (pp. 175–204). Information Age Publishing. <https://www.scirp.org/reference/references?referenceid=1501567>

Verner-Filion, J., Vallerand, R. J., Donahue, E. G., Moreau, É., Martin, A., & Mageau, G. A. (2014). Passion, coping, and anxiety in sport: The interplay between key motivational and self-regulatory pro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45(6), 516–537. <https://doi.org/10.7352/IJSP2014.45.516>

Wheeler, R. E., Davidson, R. J., & Tomarken, A. J. (1993). Frontal brain asymmetry and emotional reactivity: A biological substrate of affective style. *Psychophysiology*, 30(1), 82–89. <https://doi.org/10.1111/j.1469-8986.1993.tb03207.x>

Woods, S. W. (2000). The economic burden of bipolar diseas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1, 38–41.

<https://www.psychiatrist.com/jcp/economic-burden-bipolar-disease/>

Young, R. C., Biggs, T., Ziegler, V. E., & Meyer, D. A. (1978). A rating scale for mania: Reliability, validity, and sensitiv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3(11), 429–435. <https://doi.org/10.1192/bj.133.5.429>

원고접수일: 2025년 9월 24일

논문심사일: 2025년 11월 10일

게재결정일: 2025년 11월 10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6. Vol. 31, No. 1, 127 - 151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Dual Passion and Sav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ctivation Systems and Bipolar Disorder Symptoms

Daein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Sensitivity of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has been identified as a neurobiological vulnerability in bipolar disorde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dual passion and savoring function as mechanisms through which BAS contributes to bipolar disorder symptoms. Since BAS seeks rewarding experiences, it can manifest as a passion for activities individuals love. The outcomes of this passion can be adaptive or maladaptive, depending on how well it integrates with the self-system. When the pursuit driven by BAS becomes compulsive, it becomes vulnerable, preventing savoring and potentially leading to an increase in bipolar disorder symptoms. Conversely, when passion aligns harmoniously with the self-system, it may decrease symptoms of bipolar disorder by serving as a resource through savoring. To explore this relationship, 450 cyber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an online study, completing the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Scale (BAS), Passion Scale (PS), Savoring Beliefs Inventory (SBI), Internal State Scale (ISS) to assess current bipolar symptoms, and the Bipolar Spectrum Diagnostic Scale (BSDS) to evaluate past episodes of mania.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80, our hypothesis was supported. We found that when BAS leads to obsessive passion, savoring decreases, establishing an indirect pathway that worsens bipolar disorder symptoms. In contrast, when BAS fosters harmonious passion balanced with other life aspects, there is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at reduces bipolar disorder symptoms through savoring.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passion and savoring as new mediating mechanisms in bipolar disorder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study'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ipolar Disorder Symptoms, Obsessive Passion, Harmonious Passion, Savoring